



생산은 사회적 기초입니다. *동질적인* 사회는 생산적인 사회, 즉 유용한 사회입니다. 모든 쓸모없는 요소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동질적인* 부분으로부터 배제됩니다. 이 부분에서 각 요소는 동질적인 활동이 *그 자체로 유효한* 활동의 형태를 갖지 않고도 다른 요소에 유용해야 합니다. 유용한 활동은 다른 유용한 활동과 공통된 척도를 가지지만 활동 *자체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그로부터 발생하는 활동의 기초가 되는 공통의 척도는 화폐, 즉 집단 활동의 다양한 생산물에 대한 계산 가능한 등가물입니다. 돈은 모든 노동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며, 인간을 측정 가능한 생산물의 함수로 만듭니다. *동질적인* 사회의 판단에 따르면, 각 사람은 자신이 생산한 만큼의 가치가 있으며, 다시 말해 그는 *그 자체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한계 내에서 배열된 집단적 생산의 함수에 지나지 않습니다(즉,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질적인* 개인은 생산 수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인이 소유 할 수 있는 장인 생산에서만 그의 개인 제품의 진정한 기능입니다. 산업 문명에서 생산자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와 구별되며 제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후자이며, 결과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제품의 기능은 바로 그 사람이며 사회적 *동질성*을 확립하는 것은 생산자가 아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물의 질서에서 사회의 *동질적인* 부분은 생산 수단이나 *그 유지 또는 구매를 위한* 돈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소위 자본가 또는 부르주아 계급의 중간 부분에서 인간 성격의 경향적 축소가 일어나고, 개인이 소유한 *동질적인 것들*을 반영하는 추상적이고 상호 교환 가능한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중간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감소는 실현 된 이익의 다양한 혜택을받는 소위 중산층에게 가능한 한 많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는 대부분 감소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동질적인 활동과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후자는 노동이 아니라 이윤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의 주체로서 노동자는 사회 조직의 틀 안에 속하지만, 동질적 감소는 원칙적으로 임금 소득 활동에만 영향을 미치며, 직장에서의 행동 심리적 *동질성*에 통합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으로서의 *동질성*에는 통합되지 않습니다. 공장 밖에서, 심지어 기술적 인 작업을 넘어서도 노동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사회적 *동질성*의 가장 성취되고 표현적인 형태는 과학과 기술입니다. 과학에 의해 확립된 법칙은 정교하고 측정 가능한 세계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정체성의 관계를 확립합니다. 생산과 과학 사이의 전환 역할을 하는 기술의 경우, 저개발 문명에서 종교와 마술에 반대되는 것은 생산물과 수단의 매우 동질성 때문입니다(참조: Hubert와 Mauss, *Esquisse d'une théorie générale de la magie, Année sociologique*, VII,

1902- 1903, 15쪽).

는 *동질적인* 사람(상사, 관료 등)과 관련하여 낯선 사람,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 환원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II. 국가

현대에 사회적 부르주아 계급과 본질적인 유대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위협받는 동질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보일 때마다 마르크스주의 개념은 정당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동질성*은 폭력과 심지어 내부 반대의 자비에 따라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생산적인 조직의 놀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지만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생산에 적합하지 않거나 단순히 동질성이 불안에 부과하는 견제를 견딜 수 없는 다양한 무질서한 요소로부터 끊임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동질성*의 보호는 다양한 무질서한 세력을 제거하거나 질서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필수 요소에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는 그 자체로 이러한 필수 요소 하나가 아니며, 왕이나 군대의 수장 또는 국가와는 구별되지만 동질 사회의 일부가 그러한 요소와 접촉하면서 겪은 수정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동질적 계급과 주권 기관 사이의 중개적 형성이며, 의무적 성격을 빌려야하지만 주권 중개자로서 그것에 의존해야하는 주권 기관입니다. 이러한 주권 기관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적 성격이 그 자체로 유효한 존재가 아닌 (*이질적인*) 형성으로 이전되는 방식을 상상할 수 있지만 단순히 다른 부분과 관련하여 유용성이 드러나는 활동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은 권위와 적응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됩니다. 의회 관행에서 타협을 통한 차이의 감소는 동질성에 의해 요구되는 적응의 내부 활동의 모든 가능한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동화될 없는 세력에 대해 국가는 엄격한 권위로 문제를 단절합니다.

국가가 민주적이나 독재적이냐에 따라 지배적인 경향은 적응 또는 권위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가는 대부분의 힘을 자발적인 동질성에서 얻으며, 이를 규칙으로 고정하고 구성합니다. 따라서 그 목적과 힘을 모두 제공하는 국가라는 주권의 원칙은 고립된 개인이 국가와 관련하여 점점 더 자신을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에 의해 약화되며,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 / 또는 국가를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개인의 삶은 동질적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III. 해리, 사회 동질성에 대한 비판, 국가에 대한 비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는 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에만 양보하는 이질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 부문의 내적 해체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축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사회적 *동질성*은 근본적으로 생산 시스템의 동질성(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동질성)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생활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모순은 *동질적인* 사회적 존재의 해리 경향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해리 경향은 모든 수준과 모든 방향에서 가장 복잡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질적인* 개인들의 상당 부분이 기존의 동질성을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 정도까지만 심각하고 위험한 **형태**에 도달합니다(동질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그 특성을 잃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이 사회의 일부는 이전에 구성된 *이질적인* 세력과 자발적으로 제휴하여 그들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은 동질적인 요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해체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체는 사회적 분열의 부정적인 형태만을 나타냅니다. 분리된 요소는 긍정적인 형태의 분열을 특징짓는 완전한 변화를 겪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산 또는 조직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이질적 형성에 다시 합류하는 순간부터 후자로부터 새로운 특성, 즉 이질성의 일반적인 긍정적 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이질성*은 형태가 없고 방향성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리된 구조를 지향하며, *사회적 요소가 이질적인 측면으로 넘어갈 때에도 그 행동은 여전히 그 측면의 실제 구조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 상태와 이질적인 사회 영역의 일반 법칙에 따라 발포가 긍정적인 형태를 띠게 되며, 특히 *동질적인* 물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이 영역의 다양한 형태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동질성과 그 존재 조건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이질성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로 이어집니다. 사실, *본 동질성*으로 정의된 *이질성*의 일차적 결정은 다음과 같은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첫 번째 단계를 구성한다. *동질성을* 제외하여 설명합니다.

IV. *이질적인 사회적 존재*

사회 심리학의 전체 문제는 연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직 정확한 정의의 대상이 되지 대해 연구해야 사실에 정확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질적이라는 용어는 동화가 불가능한 요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